



"공기부터 다르네". 해발 700m 대관령에 위치한 청정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알펜시아 스키장의 슬로프 정상.

사진제공 | 알펜시아

청정자연과 명품 슬로프... '겨울레저의 천국'

해발 700m, 강원도 대관령은 맑은 공기와 울창한 숲, 시원스레 뿜어간 산줄기를 만날 수 있는 청정자연 관광지다. 가성비 못지않게 깨끗한 환경도 중시하는 국내 여행객들에게 1년 내내 인기 높은 지역이다. 이곳에 있는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스키장도 겨울이면 이런 입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겨울 레저여행객들이 몰린다.



실내 기온과 수온을 30도에 맞춰 겨울에도 따뜻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 오션700(위)과 알펜시아 홀리데이 인 리조트호텔 몽블랑 레스토랑의 대표메뉴인 한우사골꼬리곰탕. 사진제공 | 알펜시아

해발 700m 대관령 품은 자연친화적 스키장...접근성도 눈썰매장 포함 슬로프 7면, 초보자 코스 전용 리프트 눈길 선택의 폭 넓은 숙박시설...워터파크 등 '애프터스키' 풍성

●청량리역서 KTX로 70분...접근성 '굿'

알펜시아는 현재 눈썰매장 1면을 포함해 총 7면의 슬로프를 운영하고 있다. 알펜시아 스키장은 고객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완만하고 넓게 조성된 슬로프와 리프트 좌석에는 추락 방지 장치인 U 블록(Block)이 있다. 급경사면에는 펜스와 그물을 이중 설치했다. 특히 알펜시아는 초급자가 이용하거나 강습 받기 좋다. 초급자 코스인 알파 슬로프는 길이 648m, 평균 경사도 6.9%로 적당한 경사도와 폭을 갖추고 있다. 타 스키장의 초급자 코스가 중급자 코스 하단에 있는 반면, 알파 슬로프는 전용 리프트를 갖춰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중·상급자와 겹칠 우려가 낮다. 그 외 중급, 상급 등을 위한 적절한 난이도와 길이의 슬로프도 있어 실력에 맞게 즐길 수 있다.

숙박시설은 선택의 폭이 넓다. 5성급 호텔인 인터컨티넨탈(238실)과 홀리데이 인 리조트(214실), 콘도인 홀리데이 인& 스위트(419실)가 있다. 키즈룸, 반려동물

객실도 갖추고 있다. 알펜시아의 숙박시설은 평창동계올림픽 때 IOC위원과 각국 올림픽 관계자, 기자단이 사용했던 곳이다.

강원 스키장들은 시설이나 슬로프 규모가 좋은데 비해 이동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종종 단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알펜시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교통 인프라가 대폭 개선돼 접근성이 좋다. 승용차 또는 버스를 이용하면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도권 소요시간이 단축됐다. KTX를 타면 서울 청량리역에서 70분이면 진부(오대산)역에 도착한다. 진부역에서 알펜시아까지 무료셔틀버스가 있다. 이밖에 수도권과 부산, 울산, 포항에서는 유료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워터파크, 사우나에 관광지까지

요즘 가족 이용객들이 슬로프 못지않게 중시하는 '애프터스키' 시설도 다양하다. 스키장과 같이 3일 개장한 눈썰매장은 총 80m 길이로 무빙워크가 있어 편

리하게 즐길 수 있다. 12라인을 갖춰 대기시간이 짧으며 하단 안전구역은 여유 있게 확보해 펜스와 부딪히지 않도록 설계했다.

실내형 워터파크 오션700은 난방을 통해 겨울에도 내부 온도를 30도로 유지한다. 풀도 30도로 맞춰져 있어 따뜻한 물놀이가 가능하다. 파도풀과 유수풀, 키즈풀, 토네이도, 튜브, 바다슬라이드 등을 갖추고 있다. 스키점프대를 바라보는 노천탕이 매력인 오션700 사우나는 워터파크와 별개로 이용 가능하다.

리조트 인근에는 오대산 월정사, 선재길 등의 관광지가 있어 차량으로 20분 안팎이면 갈 수 있다. 강릉 경포대까지 35분, 대관령 양떼목장까지는 차로 15분 정도 걸린다.

알펜시아가 자랑하는 매력에는 다양한 먹거리도 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 플레이버 레스토랑은 겨울철 식재료인 훈합과 오징어를 넣은 훈합 아라비아파 등 다양한 메뉴를 준비했다. 홀리데이 인 리조트 호텔의 몽블랑 레스토랑도 대구 맑은 탕, 한우사골 꼬리곰탕 등을 판매한다. 간편한 스낵을 원하면 스키하우스 내 뷔페룸이 있다. 정상 힐라운지에서 음료와 핫도그, 꼬치 등 간식을 판매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롯데월드 산타 퍼레이드 보며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마을·공연 등 볼거리 풍성

서울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크리스마스와 겨울에 맞춘 다양한 테마 콘텐츠를 마련했다.

우선 실내 어드벤처 1층 만남의 광장에 산타의 본 고장 핀란드 관광청과 협업한 '산타 마을'을 조성했다. 투돌프로 변신한 빅 로티와 인종상을 비롯해 핀란드의 산타 클로스가 직접 전하는 크리스마스 메시지

도 영상으로 만나 볼 수 있다. 26일까지 매주 주말 오후 3시에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산타 마을'에서 선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핀란드 로바니에미에 있는 '산타우체국'의 우체통도 운영한다. 모바일 앱으로 종합이용권과 엽서로 구성된 패키지를 구매한 후 실내 어드벤처 1층 로티스 오피스에 앞 우체통에 엽서를 넣으면 산타로부터 답장을 받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준비한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는 뮤지컬 형식의 스테이지 공연이다. 매일 오후 6시30분 가든스테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로티, 로리 등 롯데

데월드의 캐릭터들과 산타, 요정들이 함께 하는 '해피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는 실내에 내리는 하얀 눈과 화려한 볼거리가 매력이다.

SNS에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인스타그램머블한 포토존도 파크 곳곳에서 운영한다. 야의 매직아일랜드 매직캐슬은 저녁에 3D 맵핑 영상을 활용해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변신한다. 은하수 터널로 꾸며진 오버브릿지, 눈 내리는 거기로 변신한 메인브릿지, 조형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민 백설공주의 성 등에서도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2월 17일(금) 음력: 11월 14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패정, 험한 하루, 운세: 돛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 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는 때이다. 실수하여 속내를 보였으니 오히려 일은 신속히 성사될 수 있는 것이다.	운세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나쁜 의미로 사기를 당하거나 재난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진행 중인 일에 골치가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잘 풀리지 않으며 교제비를 많이 쓰게 된다. 머리를 쓰라. 우연히 뱀이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다. 노력을 하여라.	시시한 일들로 인해 해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급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이므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살펴보아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	무슨 일에 있어서나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한 생활이 요구된다. 망신 일에는 실수를 자주한다.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쭈물만 밀바닥은 흐려도 위 일수록 맑아질 수 있다. 지출 수목 점차 좋아지게 된다. 지출이 심하니 잘 조절하라 은행 대출은 기다리면 된다.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면서 번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심사숙고해서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정지해야 할 때는 정지해야 한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고 감응하는 운기이다. 이성을 만나면 길한 날이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애정 운이 최고인 날이다.	고귀하며 고귀할수록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용모는 겸허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것이다. 매사에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며, 지금은 재능을 감춰두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물이 차지 않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다. 협력해 주는 사람을 기대할 수 없고, 홀로 자기 길을 가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 두 곳의 사업장이면 한 곳으로 합치면 좋겠다.	하늘과 땅의 조화가 되지 않는 날이다. 벽찬 일로 고역을 치른다. 그렇다고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격류를 건너고 내려면 굳센 용맹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이때에는 중요한 문제에만 치중하여 일의 부담을 더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옛날 나라에서 제왕을 올려야 했던 날이다. 즉, 현재의 번영이 하늘이나 조상의 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이다. 사업인에게는 이익이, 직장인에게는 승진이 있는 날이다.

여행

스포츠동아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15

코오롱LSI, 호텔사업본부장에 허진영 총지배인



허진영 본부장

코오롱LSI는 호텔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초대 본부장에 허진영 경주 코오롱 호텔 총지배인을 선임했다. 신입 허진영 호텔사업본부장은 코오롱 호텔 최초의 여성 총지배인이다. 1993년 제주 파라다이스호텔 식음료팀으로 업계에 입문해 29년간 부산 코오롱 씨클라우드호텔, 경주 코오롱호텔 등을 거치면서 객실팀, 식음팀 등을 거친 베테랑이다. 2019년부터는 경주 코오롱호텔 총지배인을 맡아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네 자릿수 목표이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제주항공, 코로나 여행 트렌드 맞춤 서비스 제공



제주항공은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트렌드에 맞춰 항공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우선 기존 일부 국제선에서 운영하던 비즈니스석 비즈라이트(Biz-Lite)를 6월부터 김포~제주노선에 하루 8편씩 운영 중이다. 11월 말부터는 여행사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항공권 기프트카드인 기프트켓은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모바일로 구매 후 모바일로 선불할 수 있는 선불항공권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여행자보험 가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호텔에살, 국내 첫 호텔 위클리 멤버십 사전모집

호텔 톨스테이 플랫폼 '호텔에살'을 운영하는 트래블메이커스는 호텔 위클리 멤버십 사전신청을 모집한다. 호텔 위클리 멤버십은 '호텔에살' 입점 호텔 중서 평일 혹은 주말에만 톨스테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이용권이다. 평일과 주말 중 한 기간을 선택해 최소 2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짐 보관, 열리 체크인과 레이트 체크아웃, VIP 멤버십 등의 유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멤버십 사전 신청은 30일까지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시그니엘 서울 호텔 숙박권을 지급한다.

안다즈 서울 강남, 페스티벌 프로모션 출시



안다즈 서울 강남은 페스티벌 프로모션을 출시했다. 조각보 레스토랑의 씨푸드 그릴 레스토랑은 씨푸드 브런치 세미 뷔페(사전)를 25일과 1월1일 진행한다.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디너는 3코스이며 24일, 25일, 31일은 디너타임 2부로 운영한다. 미트앤코는 브런치 코스를 25일과 1월1일 진행한다. 3코스로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디너는 4코스로 운영한다. 2부제로 오후 5시 30분, 오후 8시 각각 시작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오늘의 날씨			17일(금)		
서울 0/10	인천 10/20	춘천 0/0	강릉 0/0	대전 60/60	전주 60/60
☀️ -5 ☁️ -3	☀️ -4 ☁️ -3	☀️ -6 ☁️ -2	☀️ -1 ☁️ 2	☁️ -2 ☁️ -1	☁️ 0 ☁️ 0
광주 60/60	대구 20/10	부산 20/10	창원 20/10	제주 60/60	지역
☁️ 2 ☁️ 2	☁️ -1 ☁️ 2	☁️ 3 ☁️ 5	☁️ 2 ☁️ 4	☁️ 7 ☁️ 8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26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립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신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